

“당신은 사랑이에요”: 형제회는 우리의 작업장입니다

by Diane F. Menditto, OFS
National Vice Minister

서로의 포용

by Fr. John De La Riva, OFM Cap.
국가 영적 보조자 위원회 회장



사도직: 삶 안에서 사랑의 실천

국가형제회 정평환 애니메이터
재속회원 조 맥키



젊은이들에게 사랑을 주세요

캐슬린 모랄로, OFS
국가 FY/YA 애니메이터

우리는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고 사랑으로 돌아갑니다

by Francine Gikow, OFS

지역별 정리

“당신은 사랑이예요”: 형제회는 우리의 작업장입니다

by Diane F. Menditto, OFS
National Vice Minister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로나 혀끝으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실하게 사랑합니다” 라고 사도가 말하듯이 서로 간에 지니고 있는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 줄 것입니다. (인준받지않은 회칙 제 11 장 5-6 절).

4 월 나는 로마에서 열린 국제형제회(CIOFS)의 양성 미팅에 참석하고 돌아와서 국가형제회 웹사이트에 그 미팅에서 경험했던 것을 blog 게시물로 올렸다.

그 게시물에서 나는 내가 형제회의 선물에 얼마나 감사해 하는지에 대해 말했다. 그러나 나에게 진정으로 특별하고 감동적인 것은 서로 다른 배경, 언어 및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에 대한, 하느님에 대한, 그리고 프란치스칸 성소에 대한 우리의 사랑에서 어떻게 닮았는지를 보는 것이었다. 성령께서는 우리각자에게 우리가 잘 지내고 생산적이 되기위해 필요한 정확한 은사와 재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과 서로에게 열려 있다면 작은 “일시적인” 형제회 조차도 성취할수 있는 것을 보는 것은 기적입니다.

11 월에 있을 총회 준비를 위한 의안집 (Instrumentum Laboris)에 ‘당신은 사랑이예요’라고 발표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회칙을 살아가는 우리의 생활 방식에 의미와 중요성을 회복 시키라고 요구합니다;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회칙과 회헌을 지침으로 삼아 우리가 재속 프란치스칸으로 사랑이 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회칙과 회헌을 사용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감동을 받고 인내심을 갖는 법을 어디에서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복음을 배우고 우리 모두가 필요로 하는 매일의 회심을 추구합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을 어디에서 실천합니까?

내가 양성장과 서번트 리더로서 보낸 여러 해 동안, 나는 ‘사랑이 되기’를 배우기 위한 가장 좋은 작업장이 단위 형제회 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단위 형제회는 우리 자신과는 다르지만 성 프란치스코의 발자취를 따라 예수님을 따르는 ‘같은 길’에 있는 사람들과 상호 작용함으로써 회칙을 실천하도록 인도받는 첫 번째 장소입니다. 단위 형제회는 우리가 형제회 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족생활, 직업 생활 및 사회 생활에서 하는 모든 일에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필수 요소를 배우는 곳입니다.

형제회에서 우리는 협력, 의사 소통, 지역 사회, 헌신 및 회심에 대해 배웁니다. 이러한 필수 요소들 각각은 우리가 덜 자기 중심적이고 다른 사람의 선을 원한다는 것을 요구합니다. ‘다른 사람의 선을 바라는 것’은 사랑의 정의 중 하나이다. 우리는 형제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사랑’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을 정확히 배웁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될것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듣는 것은 빠르고 말하는 것은 느리다... 칭찬하는 것은 빠르고 비판하는 것은 느리다... 협업하는 것은 빠르고 혼자가는 것은 느리다... 변호하는 것은 빠르고 비난하는 것은 느리다... 빨리 나서서 앉는 것은 느리다... 빨리 공유하고 보류하는 것은 느리다... 빨리 따르고 미루는 것은 느리다... 빨리 반응하고 무시하는 것은 느리다... 질문하는 것은 빠르고 추측하는 것은 느리다... 평화를 찾는 것은 빠르고 방해하는 것은 느리다... 포용하는 것은 빠르고 판단하는 것은 느리다... 단결하는 것은 빠르고 분열하는 것은 느리다... 용서하는 것은 빠르고 원한을 품는 것은 느리다... 환영하는 것은 빠르고 피하는 것은 느리다... 봉사에서 우리자신을 비우는 것은 빠르고, 우리 자신으로 가득채우는 것은 느리다...성령을 부르는 것은 빠르고 우리 자신에게 의지하는 것은 느리다.. 빠르게 기도하고 느리게 낙심한다.

형제회 작업장에서 우리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

서로의 포옹

by Fr. John De La Riva, OFM Cap.

국가 영적 보조자 위원회 회장

액자 안에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의 주님을 끌어안고 있는 성 프란치스코 모습을 묘사한 이 익숙한 그림을 바라보면서 이 글을 씁니다. 거부할 수 없는 사랑의 시선과 팔을 벌려 포옹하는 이 작은 가난한 자는 하느님-사람의 사랑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이 신비로운 만남은 갈보리의 이미지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성 바오로가 “나에게는 삶이 곧 그리스도이며,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라고 말할 때의 외침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말씀은 구세주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려면” 성 바오로, 성 프란치스코,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받아들여야 하는 삶의 방법이자 목적임을 말해줍니다

이번 TAU-USA 호의 주요 주제는 ‘우리는 사랑입니다’입니다. 저 자신(그리고 아마도 여러분도)에게 이 선언은 매우 기쁘면서도 동시에 우리를 ‘질그릇’으로 빚으시고 그 안에 하느님이 머무르는 거처로 설계하셨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기에 두렵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사랑입니다’라는 주제는 우리의 사랑을 더 높은 경지로 변모시키고 완벽하게 하는 하느님의 사랑의 본질을 확인하게 합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 사랑은 내 안에 머무르고, 희생적이며, 생명을 주는 봉헌, 즉 강생이라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성 프란치스코에게 내미신 팔(십자가의 못에 묶여 있지 않는 팔)처럼, 그리스도의 신성한 주도권의 진리 속에서 우리 모두는 우리의 불완전함의 한계를 넘어 희망과 사랑으로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발견합니다. 요한일서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하며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격려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먼저 사랑받았기에 사랑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 신성한 사랑의 선물은 자신이 무가치하다는 비판적인 인식을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사랑 속에서 자신을 내어주는 용기와 자신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따라서 성 프란치스코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와 서로 포옹하며 점점 더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를 사로잡고 포옹하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사랑의 행위를 깊이 생각하고 음미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지요? 우리는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더욱더 분명한 인식속에서 우리의 존재가 고요함 속에 있든 구체적인 행위 속에 있든,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불타오르게 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라고 프란치스코 성인의 이 불타는 외침은 프란치스코 가족에게 분명히 새로운 경지의 영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온전하고 거룩해지려는 노력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에게 가장 자연스럽고 초자연적인 욕망이자 노력이 됩니다. 거룩하게 하는 은총의 자유는 우리가 잘못을 범할 때에도 방해받지 않고 더 큰 온전함과 관대한 사랑으로 계속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줍니다

제가 “우리는 사랑입니다”라는 주제 문구를 되새기며, 이는 사랑이신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 위해 현재 순간, 지금, 지속적으로 의지의 선택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선언은 우리가 과거의 사랑에 대한 영광에 안주하지 않아야 하며, 또 미래에 있을 사랑에 대한 기대에 만족하지 말아야 함을 요구합니다. 반대로, 우리는 지금 현재 앞에 있는 사람과 상황에 집중하고 응시하면서,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받듯이 사랑으로의 부르심에 “예”라고 의도적으로 응답하는 봉헌의 순간에 항상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되고자 하는 것을 지금 행해야 하며, 우리가 하는 것이 우리는 그렇게 될 것임을 기억합니다.

이 사랑의 "존재"의 범위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은 마음과 온 정신과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근본적인 부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웃을 미워하는 것은 거짓말쟁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이웃 사랑을 배신하는 것은 참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것은 형제나 자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도전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족과 친구를 넘어 ("심지어 이교도도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원수와 박해자까지 사랑하는 더 **큰 사랑**에 부름받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을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참된 사랑의 희생과 십자가를 지고 가야하며, 성령의 명령에 대담하게 우리의 마음을 열도록 많은 방법과 수단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을 믿으라고 격려합니다.

타인을 위한 자신을 봉헌하는 데 있어 자유로운 희생적인 우리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저는 18세기의 프란치스코 제3회 수도자였던 성 베네딕토 요셉 라브레의 영적 권고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성 베네딕트는 귀족 출신이었지만 자발적으로 가난한 방랑 생활을 선택했으며, 이탈리아 로마의 거리에서 침묵의 기도, 금식, 속죄의 순례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말수가 적었지만, 그가 말할 때는 가치가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 우리의 사랑이 어떻게 성화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올바르게 사랑하려면 세 개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말하며, 고난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복종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향한 새 살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가르침, 조언, 기도로 돕고, 불쌍한 죄인들과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 주님께서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과 자비를 허락 하시도록 연민과 자비심을 갖고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자신을 향한 청동 같은 견고한 마음으로, 모든 종류의 감각적 욕망을 미워하고, 계속해서 자기 사랑과 연민을 거부하며, 육체를 절제하고, 타락한 본성의 악한 경향을 억누르도록 해야 합니다. 이 세 개의 마음으로 사랑은 우리를 다가올 생명의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게 합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로 합쳐진 세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분을 향한 불타는 마음

이웃을 위한 새 살 같은 마음

자신을 위한 청동 같은 마음

— 성 베네딕토 요셉 라브레

한번 더 성 프란치스코와 우리의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과 서로 팔을 뻗어 포옹하는 사랑의 모습을 보면서, 사랑으로의 부르심에 응답하도록 격려 받습니다. 세상이 굴욕, 고통, 약점, 패배로 연상되는 이 고난의 골고타는 오히려 타인을 위한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힘을 상기시켜줍니다. 이 사랑은 이타적인 희생과 자기 봉헌의 피에서 새로운 생명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사랑입니다. 이보다 큰 사랑은 꿈이나 환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우리의 불완전하고 부서진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는 빛입니다. 우리의 서로의 삶의 교차로에서 지금 여기에 주님께서 사랑 안에 거하고자 하십니다..



사도직: 삶 안에서 사랑의 실천

국가형제회 정평환 애니메이터 재속회원 조 맥키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양식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들의 몸에 필요한 것은 주지 않으면서, “평안히 가서 몸을 따듯이 녹이고 배불리 먹으시오.”하고 말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야고버서 2:15-16)

범죄자들과 관리들에게 희생양이 되어,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도 보호받지 못하는 수 많은 사람들이 국경지대에 모여 있습니다. 그들에게 "평화와 모든 좋은 것"을 바란다고 하면서, 음식과 숙소도 마련해 주지 않고 안전도 보장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재속회원들은 그들에게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것을 해 주고 싶어 하며, 우리가 실천하는 사랑이 실제로 그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평환 모델은 연대행동을 통해 들어나는 진정한 사랑의 도전과 보상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재속회원들은 자신의 형제회(단위, 지역 형제회)에 모여 필요한 것을 찾고, 그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합니다. 이런 집단사도직은 모든 형제회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유익한 것은 사실입니다. 회원들은 각자의 재능을 발휘하면서 형제애, 관계 형성, 그리고 공동체 경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최대한으로 발휘됩니다.

미국의 여러 지역에서 우리는 이주민을 포함한 소외되고 빈곤한 사람들과 연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Catholic Charities USA나 그 산하 단체에 참여합니다. 이 사진은 텍사스주 라레도에 있는 San Felipe de Jesus 형제회가 사순절에 급식봉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사진을 보내주신 Los Tres Companeros 지구 형제회의 정평환 애니메이터인 Chris Kolb에게 감사드립니다.

최근 케네벡크포트에서 열린 St. Elizabeth of Hungary 지구 형제회가 가진 연례 피정에서, Sam Fuller 카푸친회 신부님은 보스턴에서 하고 있는 카푸친 이동 봉사 활동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당 밖으로 나가 거리 사람들을 만나세요. 전도를 강요하거나 그리스도인이 되라 하지 말고, 대신 그들이 대화를 이끌도록 하세요. 봉사하는 사람은 자신을 비워야 합니다." 재속회원 자원봉사자 로베르타는 “봉사의 결과는 단순히 샌드위치와 커피가 아니라 영적선물입니다.”라고 덧붙여 말 합니다.

정기적인 사도직 활동의 또 다른 좋은 점은 단합감입니다. 샘 신부님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회칙 **Fratelli Tutti**를 언급하면서, 교황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해 봉사가 곧 사랑임을 강조하셨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봉사는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표양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부정을 없애기 위해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 주교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모두가 이러한 입장을 알고 공유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입장을 따를 것을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을 합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을 직접 돕는 일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그것을 논란거리로 만들려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무르고 하느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십니다." (요한 1서 4:16) 저희 어머니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구절을 성가처럼 노래하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머릿속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민자나 다른 그룹을 악마화하여 불화를 조장할 때 나는 괴로워하기보다는 그 구절을 떠올립니다. 우리가 함께 봉사할 때, 진정으로 사랑 안에 머무르게 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자비 안에서 하나가 되어 ‘독수리의 날개’로 들어 올려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텍사스주 라레도의 산 펠리페 데 헤수스 형제회는 사순절 사도직인 가톨릭 자선 단체의 급식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사랑을 주세요

캐슬린 모랄로, OFS
국가 FY/YA 에니메이터

“사랑은 우리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인용문을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실제로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만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행동, 말, 의도가 진실하고 구체적으로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젊은 세대를 사랑한다는 말을 할 때에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젊은이들에 대한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 곁에 없으면 그들을 사랑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젊은 가톨릭 신자가 없다면 어떻게 그들에게 사랑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역하셨습니다. 일부는 자신의 의지로 그에게 다가갔다. 그들은 그의 치유 능력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그가 설교할 때 한 말에서 영감을 받았거나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이 남자에 대해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형제회 안에 숨겨져 있다면 젊은이들은 프란치스코 영성이나 복음 생활에 대해 듣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따르도록 영감을 주는 하느님의 사랑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사람들을 찾아 나가셨습니다. 그 우물가의 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나무에 올라 간 자케우스를 발견하고 그에게 다가갔다.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길에 제자들과 함께 걸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젊은이를 찾도록 격려받습니다. 그들이 있는 곳에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의 삶 속에 우리 자신을 몰입하는 창의적이고 생명을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찾았다면(또는 그들이 우리를 찾았을 때) 어떻게 우리는 “사랑이 될 수 있을까?”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받는 어린이들 처럼 너희는 하느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셨듯이 사랑에 빠지십시오.” (에베소 5:1-2)

하느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는 사랑할 사람을 골라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에도 우리 모두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 안에 있는 신성한 씨앗의 현존과 용서의 변화시키는 힘을 신뢰함으로써” 우리의 회칙을 실천하겠다는 의식적인 선택을 해야 합니다. (OFS 회칙 19조). 프란치스코는 영성이 성장하면서 나병환자를 포용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젊은이들을 고려할 때 우리가 승인하지 않는 옷, 피어싱, 행동을 관과해야 할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청소년 위원회의 전 영보이셨든 작은형제회 (OFM)의 스콧 슬래텀 수사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도록 그냥 사랑하세요.” 기억하세요, 우리 젊은이들은 여정 중입니다. 비판적이지 않고 사랑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그들이 거룩해 지려는 노력을 지원하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셨듯이 극단적인 방법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필요를 넘어 다른 사람의 필요에 응답할 때 “우리는 자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젊은이들은 무엇을 당신에게서 필요합니까? 결정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그 동안에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짧은 순간일지라도 그들에게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마지막으로,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쁨과 거룩한 목적으로 조건 없이 사랑할 때, 우리는 매혹적인 광채를 발산합니다. 우리의 본보기는 물론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인 복음 생활을 고려하도록 초대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고 사랑으로 돌아갑니다

by Francine Gikow, OFS

나는 내 연인의 것 그이는 나를 원한답니다. 오세요, 나의 연인이여 우리 함께 들로
나가요. 시골에서 밤을 지내요.
(아가 7:10-12)

성경은 하느님과 인류 사이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계속해서 사랑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며 하느님의 사랑은 항상
열매를 맺고, 표현적이며, 확장적이고, 사랑할 “다른” 존재를 원합니다. 이 사랑할 “다른”
존재에 대한 갈망으로 하느님은 창조하셨습니다! 하느님은 자신의 사랑을 피조물과
나누고자 창조하셨으며, 그로 인해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이는 하느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살아있는 사람들을 창조하는 것으로 절정에 이릅니다. (창세기 1:26).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 1 4:19).
하느님은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분과
사랑 안에 살 때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무르고 하느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십니다’ (요한 1
4:16). 복되신 삼위일체의 세력의 사랑은 사랑의 모범입니다. 성 프란치스코가 말한
것처럼, ‘삼위와 일체 안에서의 전능하신 하느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며 찬미하고 찬양하며
감사드리고 흠송하십시오’ (인준받지 않은 수도규칙 21:2).

하느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현존, 말씀, 행동으로
육화하셨고, 예수님. 하느님은 사도들을 통해 우리가 그분을 알게 계획하셨습니다.
육신으로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났습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살게
하시기 위해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좌절과 죄 중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그분으로부터 멀어지더라도 우리에게 최선을 바라는 하느님의 순수한 사랑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경계도, 한계도, 배제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제한된 머리와 경험으로 우리는 이런 아가페적(자기 희생적) 사랑을 믿기 어려워합니다.
보잘것 없는 우리를 하느님이 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의심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의 사랑으로 측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느님의 아가페 사랑은 사랑의 대가
없이 무조건 사랑하십니다 – 단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요한 1 4:18).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으로 가득 찰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나누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함으로 그분의 사랑이 우리 영에 가득차 우리의 영은 찬미와 영광으로 넘쳐 하느님
사랑 경험을 나누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 1 4:11).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실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사랑의 모범이 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요한 15:5).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는 기쁘고 미소 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미소입니다! 간단한 미소의 사목은 하느님의 영향을 받는 내 삶의 기쁨을 드러냅니다!

한 현인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고, 사랑으로 돌아갑니다.

지역별 정리

이번 호에서는 30 개 지역 중 5 개 지역을 집중 조명합니다.

평화의 여왕 지구 형제회 (Queen of Peace)

퀸 오브 피스 지구형제회는 중서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미네소타, 아이오와, 네브래스카 동부, 노스다코타 및 사우스다코타 대부분 지역, 위스콘신 서부 지역입니다. 이 지구형제회에는 기존의 23 개의 단위 형제회, 1 개의 신생 단위 형제회, 2 개의 신생 그룹과 올해 1 월에 시작한 1 개의 신생 그룹이 있습니다. 평화의 여왕 지구형제회에 대해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지구형제회 영적 보조자인 캐시 타올미나(OFS)는 1990 년대 후반 전국 가톨릭 청년회의 부스에서 H2O 프로젝트를 보고 사순절 기간에 이 프로젝트를 미국 재속프란치스코회로 가져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거의 10 만 달러를 모았고, 중앙아메리카에 FYYA 의 이름을 딴 우물도 지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돈을 기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과의 연대를 사랑했습니다.

다섯명의 프란치스코 순교자 지구 형제회 (Five Franciscan martyrs)

다섯명의 프란치스코 순교자 지구형제회는 플로리다 전역과 앨라배마 주 남단, 조지아주 회남단을 포함합니다. 지구내에는 지난 9 월에 신설된 1 개의 단위형제회를 포함해 31 개의

단위형제회가 있습니다. 앨라배마주 페어호프에서 동쪽을 지나 남쪽으로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비치까지 700 마일이 넘는 거리에 걸쳐 있습니다. 이 지구형제회는 조지아에서 아메리카 원주민에게 살해당한 프란치스코회 순교자 5 명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이들은 조지아 순교자 5 인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세히 알아보세요:

<https://maryourqueen.com/beatification-cause-of-the-five-georgia-martyrs/>

다섯 명의 프란치스코 순교자 지구형제회에 대한 특별한 이야기: 지구평의회는 최근 지구형제회 가이드라인을 다시 작성하는 기념비적인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로키산맥의 성모님 지구 형제회 (Our Lady of the Rockies)

로키의 성모 지구형제회는 몬태나 주 전역과 와이오밍 주 일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6 개의 단위형제회가 있으며, 그 중 한 형제회는 두 곳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두 형제회는 이름이 있다는 것을 알기도 전에 형제적 동반을 통해 함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각 형제회에는 프란치스코 수도사 또는 가난한 클레어 수녀가 영적 보조자로 있습니다. 세 개의 형제회에는 많은 지원자와 후보자가 있으며, 세 개의 활기넘치는 형제회는 새로운 회원을 확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각 단위 형제회에는 독특한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같은

이름의 동상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으며 동상이 세워진 지 10 년 후에 설립되었습니다



로키 산맥의 성모상에 대한 추가 정보: 몬태나는 미국에서 네 번째로 큰 주이며, 로키 산맥의 성모상은 미국에서 네 번째로 큰 동상입니다. 몬태나는 미국에서 가장 큰 마돈나 동상을 자랑합니다. 이 동상은 몬태나주 버트에서 많은 기적과 경제 위기 속에서 계획되고 조율되어 산 위에 세워졌습니다. 여기에서 자세히 알아보세요: <https://www.churchpop.com/incredible-story-behind-montanas-90-ft-statue-mary>

성삼위일체 지구 형제회 (Holy Trinity Region)

성삼위일체 지구 형제회는 켄터키주, 오하이오주 중부 및 남부, 인디애나주 남단을 포함합니다. 이 지역에는 12 개의 기존 형제회와 1 개의 신생 형제회가 포함됩니다. 성삼위일체 지역의 독특한 점: 렉싱턴 교구에 프란치스코회의 주교, 존 스토크 주교님 (John Stowe, OFM, Conv.)이 계시다는 행운을 가지고 있고, 2026 년 5 년주기 정기회의 (Quinquennial)의 개최 지역이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성 프란치스코의 형제 자매 지구 형제회

(The Brothers and Sisters of St. Francis)

성 프란치스코 형제자매 지구 형제회는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테네시, 앨라배마 대부분 지역을 관할합니다. 이 지역에는 27 개의 단위 형제회와 1 개의 신생 단위형제회, 그리고 새로 결성된 그룹이 하나 있습니다. 이 지역의 이름은 관구(Province)에서 지구회로 전환할 때 전환 팀의 일원이었던 제니 테일러 존슨이 한 말에서 따온 것으로, 그녀의 말의 일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우리는 프란치스코의 삶의 방식을 함께 따르고자 하는 평신도 형제 자매들입니다”. 성 프란치스코의 형제 자매 지구 형제회에 대해 흥미로운 점은 이렇습니다: 29 개의 단위 형제회, 약 600 명의 형제 자매들, 그리고 그들이 형제회에 가져다주는 다양성이 큰 은총이 되었습니다. 이 지역의 크기와 포함되는 주의 숫자를 고려할 때, 주변을 여행할 경우 약 2000 마일이 소요되며 외곽 도시를 방문하려면 꼬박 36 시간을 운전해야 합니다.

